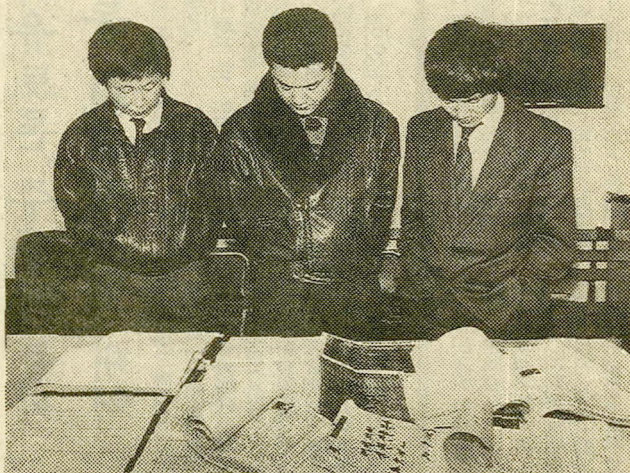


한국청년들을 모집, 일본술집에 「남자집대부」로 취업시켜 일본여성들을 시중을게한 여행사 직원 재일교포들 3명이 걸려왔다.
〈安哲民기자〉



91.2.27

20代청년 17명 就業미끼 유인 日本에 집대부로 넘겨

여행사 代表 등 영장

한국인청년들이 일본의 술집에서 남자집대부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경찰서는 27일 여행업선화사를 차려놓고 일본 술집에 남자집대부를 소개해 온 (주) 오주한영여행사대표 안영희(37·서울송파구 露室 3동주공아파트 3단지)와 재일교포 金泰후씨(22·일본東京 江崎(타나)이트클럽 점장부장) 등 3명을 불려와 국외이송을 위한 유인매매 및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서울鍾路구 世宗路 176 세원빌딩 3층에 30평 가량의 사무실을 임대해 여행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20대청년 17명을 일본東京의 킷스타나이트클럽에 남자집대부로 넘겨주고 술집종으로부터 1인당 1백50만원씩 모두 2천5백만원의 소개비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 취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재일교포 金씨의 꾀에 빠져 남자집대부로 팔려갔던崔모씨(26·仁川시南구 崇義2동)가 일본여자들에게 술시중을 들고 외박을 시키는데 환멸을 느껴 탈출해 한국에 돌아온 뒤 경찰에 모두 불발했다.

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대경유학원 원장 김택용(38)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김아무개(17·마포구 도화동)양을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명동클럽'에 집대부로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본 돈 50만엔을 받는 등 지난 89년 6월부터 지금까지 부녀자 86명을 술집에 소개시켜주고 2억5천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91.11.7

여자 80명 일본에 집대부로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부녀자 80여명을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의 술집에 집대부로 송출해온 최덕석(46·종로구 권농동 183)씨 등 3명에 대